

문학 속 우리말

—

‘일본식 한자어’의 정체

일본 제국하 조선인 문인들의 위기의식을 중심으로

—

김재용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식 한자 어휘 문제는 그 논의의 연원이 길다. 해방 직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각 분야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체감되는 것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 상당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짧은 해방 직후의 시간만으로는 어렵은 일이었을 것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김기림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글을 발표했지만, 그 탁월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낳지는 못하였다. 최근에 한 일본어학 연구자가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을 내 이 문제를 재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본식 한자어의 복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듯싶다.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면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문물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한자 어휘를 가리킨다. 삼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문명 개화’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가 주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조선과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물론 조선과 중국은 다소 달랐다. 조선은 일본이 번역하여 만든 어

휘를 그대로 빌려 쓴 반면, 중국은 한자 종주국답게 일본의 예를 따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전통에 맞게 독자적으로 번역하여 어휘를 만들어 썼다. 예를 들어 영어의 ‘카(car)’를 일본이 ‘자동차(自動車)’라고 번역하자 조선은 이를 추종한 반면, 중국은 ‘기차(汽車)’라고 하였다. 영어의 ‘인더스트리(industry)’를 일본이 ‘산업(産業)’으로 번역하자 조선은 이를 그대로 따랐지만 중국은 ‘공업(工業)’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에서는 ‘산업화’라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공업화’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된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삼국의 근대 어휘를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규명될 문제로, 선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동아시아 미래를 생각할 때 삼국의 학자들이 협업해야 할 향후의 벽찬 과제임이 틀림없다.

필자가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이런 층위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일본식 한자 어휘는 메이지(明治)유신 이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조선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어휘가 존재했는데도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일본의 한자어로 조선의 한자어를 대체 시킨 어휘를 일컫는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영똥하게도 재조(在朝) 일본인이었다. 조선에 이주하여 생활하던 일본인들은 같은 사물과 개념에 대하여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한자 어휘와 조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해를 최소화하고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재조 일본인들은 대조표를 만들 정도였으니, 당시 조선식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의 충돌이 꽤나 심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민지 지배가 길어지면서 조선의 지식인과 민중이 일본의 출판물에 실려 온 일본식 한자 어휘들에 익숙해지자 이 일본식 한자어들이 조선어에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차이를 피

부로 감지하였기에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한 이들조차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동화되었다.

염상섭은 1897년생이기에 조선어에 익숙한 세대에 속한다. 하지만 청년의 문턱에 들어설 무렵인 191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대학까지 다녔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어에 매우 익숙한 편이었다. 그런데도 염상섭 소설에 나오는 어휘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조선식 한자어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의식적으로 극복하려고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학생들이 염상섭의 작품을 어려워하는데 거기에는 이것도 한몫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의(交椅)’라는 어휘이다. 학생들은 의자(椅子)라는 어휘는 알지만 교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만나면 ‘염상섭 소설은 역시 어렵구나.’라고 속단한다.

염상섭은 일본식 한자 어휘와 조선식 한자 어휘가 중첩될 때 그것의 역사적 차이를 잘 깨달았던 사람 중의 하나였기에 가급적 일본식 한자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식 한자 어휘를 선호하였다. 그런 염상섭이지만 실제 소설에서는 일본식 한자어가 조선어 한자어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기도 했다. 1925년에 쓴 염상섭의 단편소설 <윤전기>에 사용된 ‘교의’와 ‘의자’를 살펴보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의의 용례

- 1) 킁킁한 저편 구석에서는 여전히 툭질하는 소리가 나나, 큰 책상 뒤에 교의를 늘어놓고 누웠기 때문에 자는 사람의 몸동아리는 보이지 않는다.
- 2) P가 간신히 진정을 시켜 놓은 주정군들이 또 교의를 집어치고 난로를 부시고 들싸는 모양이다.

- 3) A는 쾌심하다는 생각을 참으며, 얼굴이 별경게 상기가 되어 자기 자리로 가서, 두루막이를 활활 벗어서 옆의 교의에 내던지고 앉는다.
- 4) 아래서 이때껏 혼자 도맡아 떠들다시피 법석을 하고, 이번 통에 교의를 열 몇 겹이 부셨다는 기계간 주임 덕삼이다.
- 5) 삼십 분 후에는 당신집 식구를 맡기로 할 테니, 가서 교의나 부시지 말고 가만히 얹전히 앉았어요.
- 6) 덕삼이는 옆에 놓인 교의를 한번 땅 부드떠려 보인다.

• 의자의 용례

- 1) 그러나 하얀 옥양목 두루마기에 노랑 기포 구두를 신고, 의자에 춘아다리로 비뚜름이 앉아서 종알거리던 자도, 눈을 세모지게 뜨며, A의 시선을 되받아 낸다.
- 2) 아래 기계간에서 운전기가 와르륵 땡 하고 기운차게 도는 소리에 난로 앞에서 의자에 파묻혀 잠이 폭 들었던 A는 눈이 번쩍 띄었다.

이 짧은 단편에서 교의가 여섯 번에 걸쳐 쓰인 반면, 의자는 불과 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1920년대에는 여전히 조선식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본식 한자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은 조선식 한자 어휘와 일본식 한자 어휘의 충돌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조선식 한자 어휘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일본 문화가 압도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는 의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재조 일본인들이 만든 대조표를 보면 일본에서는 의자를 사용하는데 조선에서는 교의가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자 문화권인 만큼 이

두 어휘가 조선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조 일본인들이 이렇게 차이를 밝혀 놓은 것을 보면 일제 강점 직후만 해도 조선에서는 주로 교의가 사용되고, 일본에서는 주로 의자가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쇼가쿠칸(小學館) 《일본 국어대사전》을 보면 의자는 일본에서 전통 시대부터 사용되었고 교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염상섭이 조선어 일상에서는 교의를 사용하다가 일본의 영향으로 차츰 의자를 사용했음은 분명하다.

일제 강점 이후 일본식 한자 어휘가 조선식 한자 어휘를 대체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왜곡상을 문학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경우로 채만식의 《탁류》를 들 수 있다.

차가 대전역에 당도하자 초봉이를 앞세우고 플랫폼으로 내려서던 제호는 명승고적을 안내하는 간판에서 유성온천이라는 제목이 선뜻 눈에 띄었다.

‘유성온천? ……온천?’

제호는 내숭스럽게 싱긋 웃으면서, 간판을 보던 눈으로 초봉이의 뒷맵시를 훑는다. 비로소 그는 제 야심을 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겨볼 생각이 나던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아무렇게라도 오래잖아 만들기라도 할 박제호지만 우연히 그에의 찬스는 빨리 왔고 겹하여 좋았을 따름이다.

“초봉이, 온정 더러 해봤나?”

쇠빨은 단김에 뽑으라 했으니 인제는 시간문제라 하겠지만 시방부터는 옹게 남의 계집을 피는 수작이거니 생각하면 일찍이 여염집 계집한테는 못해 보던 것이라 노상 뒤가 돌려다보지 않지도 않았다.

초봉이는 마침 가드 밑을 지나면서 전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갈 제 이것을 보고 진기하게 여기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한눈을 파느라고 제호가 재우쳐 물을 때서야 겨우 알아들었다.

“온정이요? 온천? ……”

초봉이는 되묻고서 고개를 가로 흔든다.

“…… 못 가봤어요.”

제호와 초봉이가 나누는 일상 대화에서는 애오라지 ‘온정(溫井)’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관현이 제작한 간판에서는 ‘온정(溫井)’ 대신에 ‘온천(溫泉)’이라고 적혀 있다. 제호와 초봉이는 온천의 뜻을 잘 몰라 대충 짐작할 뿐이다. 당시에 조선식 한자어인 온정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식 한자어인 온천이 위로부터 점차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대변에 알 수 있다. 오늘날 온정이란 어휘는 사라지고 우리들이 온천이란 일본식 한자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식 한자의 유입이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어휘에 민감했던 작가 중의 하나였던 채만식이기에 이런 대목을 통하여 우려를 표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제하에서 조선식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의 충돌과 경합이 실제로는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결국 일본식 한자어가 조선식 한자를 대체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일제하 조선인 작가들 중에서는 정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도 있다. 이상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강점된 해인 1910년에 태어난 만큼 초등학교(이상이 입학했을 때는 보통학교라 불렀다)부터 일본어로 수업을 받았다. 물론 조선어도 배웠지만 압도적으로 일본어가 지배하는 학교에서 근대적 교양을 배웠다. 일본의 신조사

(新潮社)가 1927년에 발매한 《세계문학전집》을 가지고 문학 수업을 한 첫 세대인 만큼 개념어 등을 비롯한 많은 어휘들을 일본어를 통해서 받아들였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조선어가 편하지만 글을 쓸 때는 일본어가 편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은 조선어로 창작을 시작하고 줄곧 조선어 창작을 했다. 그런 이상마저도 조선식 한자어 대신에 일본식 한자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1936년 도쿄로 건너간 후에 썼다가 나중에 《문장》에 유고로 발표된 〈실화〉에서 일본식 한자 어휘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선생님(이것은 실로 이상 옹을 지적하는 참담한 인칭대명사다) 왜 그러세요-이 방이 기분 나쁘세요?(기분? 기분이란 말은 필시 조선 말이 아니라) 더 놀다 가세요-아직 주무실 시간도 멀었는데 가서 뭐 하세요? 네? 얘기나 하세요

젊은 사람이 작중 화자인 이상에게 ‘기분(氣分)’이라는 일본식 한자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상이 당시 일본식 한자 어휘와 조선어 한자 어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조선식 한자 어휘 ‘심기(心氣)’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기분’이 들어섬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일부러 설정한 것이다. 강점 이후 일본어가 공식의 장에서 주류가 된 시기에 태어나 살았던 이상이 이런 정도로 반응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제하 조선의 문인들이 실제로 일본식 한자 어휘가 조선어 한자 어휘를 잠식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말에 가장 민감한 이들이 바로 이들 문인이고 보면 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작가들의 언어 감각을 존중하여 당시 글을 세밀하게 읽고 그 맥락을 따져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전 그 어디에도 우리 어휘에 들어와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확하게 밝혀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향후 문학 연구자와 언어 연구자가 힘을 모아 근대 우리 어휘의 실상을 천착하고 이 성과를 사전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